



제목	실�크로드 미술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열화당
발행일	1997. 2. 10.
저자	권영필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318
ISBN 또는 ISSN	978-8930110501

내용 요약

내륙 아시아를 횡단하는 동서통상로인 실�크로드는 2천여 년 전 형성됐으며, 이 길을 통해 비단 등 동방의 특산품이 서역으로 전해졌고 보석, 직물, 유리제품 등의 물건뿐만 아니라 불교, 이슬람교 등이 동아시아로 흘러들어왔다. 또 문물교류와 함께 미술 등 예술분야에서의 교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이 책은 미술사를 전공한 저자가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 문물교류를 미술사적 시각에서 규명한 역작이다. 실�크로드 미술사의 전반적인 특성을 밝혀내면서 한국의 고대미술을 실�크로드 미술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려는 것이 이 책의 기본 시각이다.

저자는 실�크로드 미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소박성’을 들고 있는데, 이는 질박함이나 단순성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불러일으키는 기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서구학자들이 실�크로드 문화의 동쪽으로의 확산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경주고분에서 서방의 유리가 출토되는 점을 볼 때 실�크로드 지도를 경주까지 연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미술을 청동기 시대 이래 유입된 북방, 중앙아시아 미술과의 연관 속에서 조목조목 해명하면서, 우리 미술에 내재된 실�크로드 미술 일반의 특징과, 또 그 역사적 교류 속에서 형성된 우리 미술의 독자적인 기질 등도 함께 보여준다. 이런 관점 아래 서술된 열세 편의 글, 그리고 이백오십여 점에 달하는 도판들과 그들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저자의 논거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